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70年을 향한 標語

1．教会에 革新을！
2．社会에 変革을！
3．世界에 所望을！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9月15日(日)〈1974年〉第302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新宿区戸塚1—551(〒160)
電 話03(202)5398番
発行人 崔京植・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15日発行 購読料 1部2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在韓被爆者구호呼訴

治療위해 渡日한 辛泳洙氏

辛 泳 洙氏

光復의 기쁨 속에서도 그기쁨을 나누지못한 사람이 있다하면 그것은곧 被爆者들이라 말할수있다。日本의 労動力으로서強制로 끌려와 마지막에는 被爆까지 당하여 29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런 치료나 생활의 보장도 받지못한채 오늘도 죽음의 골자기를 헤매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日本에와 被爆者手帖을 発付받게된 辛泳洙氏(54歳)를 本紙編集人金君植목사는 五反田整形病院으로찾아가 在韓被爆者들의 実態를 직접 들을수 있었다。

현재 本国에는 약2万名의 原爆被爆者가 있는데 被爆者에대한 인식은 어떤 괴병에 걸린 사람과같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29년간의 슬픔을 말하였다。

日本에서는 치료나 구호면에 있어서 政府예산중 百50億円에 달하는예산으로 구호하고 있으나 本国에서는 전연 받지도 못하였다고 밝히면서 이책임은 어디까지나 日本이 져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번 日本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된것은 篤志家에 의하여 성취되어나 개인만이 그特恵를 누리게 됨이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 하며 在韓被爆者2万名을 구호하는 데는 더많은 사람들의 関心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하였다。

本国에서는 신문 같은 마스메디아의 関心도 낮고 国民의 関心도 낮다。

日本에 와서 居留民団中央本部와도 被爆者의立場을 호소하였으나 그다지 관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있는 実情이다。

다만 몇몇 日本人들의 그룹이 韓国被爆者구원의 会를 조직하여 活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쪼록교포들이 이일에 큰관심을 기울여 앞장서 줄것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席上에서 辛氏와 金목사間에 긴밀한 연락을 가질것을 다짐하고 辛氏는 今年内로 또다시 日本에 오게되니 그때 더 具体的으로 의견의 교환을 가져줄것을 요망하였다。

많은協助에 感謝

五月会議賛助者芳名報告

지난5월에 개최된 国際회의의 評価会를 9월11・12일 양일에걸쳐 宝塚의 「黙想の家」에서가지게 된다。

五月会議가 끝난후 이제 그評価会를 가지게됨은 그동안 五月会議가거둔 성과를 앞으로 구체화하는데의 諸問題를 論하게 된다한다。

또한 五月会議에 많은 교회와 교우유지가 物心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심에대해 다음과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大阪	二一〇、〇〇〇
三次	三、〇〇〇
名古屋	二八〇、〇〇〇
札幌	二、五〇〇
水島	五、〇〇〇
調布	三〇、〇〇〇
岐阜	三〇、〇〇〇
布施	二〇、〇〇〇
岡山	一〇、〇〇〇
広島	一五、〇〇〇
折尾	三九、〇〇〇
北部	九六、〇〇〇
西南地方婦・青	九、五〇〇
神戸	一〇、〇〇〇
東京	一七〇、〇〇〇
京都	一六五、〇〇〇
熊本	七〇、〇〇〇
下関	六〇、〇〇〇
横浜	六〇、三六〇
堺	五〇、〇〇〇
小倉	九〇、〇〇〇
桑名	一〇、〇〇〇
宇部	一〇、〇〇〇
福岡	四五、〇〇〇
横須賀	一三、〇〇〇
川崎	六〇、〇〇〇
西成	一〇〇、〇〇〇
西新井	八一、二〇〇
岡崎	二〇、〇〇〇
船橋	三〇、〇〇〇
関西地方	七五〇、〇〇〇
平野	二〇、〇〇〇
合計	二五六四、五六〇

〈外国〉

카나다長老教会	七一三、一六五
WCC	一二九九、九八〇
WARC	二五九、九九六
WCC	一〇四八、九一四
合計	三三二二、〇五五

関西地方 75万円中 個人으로 献金하여 주신분의 방명은 다음과같다。

西成教会 김정삼 문외남 심구정
오경팔 조정선 전여옥
최방자 문영순 최인환
北部教会 이정남 정삼순 이소용
김만연 김주호 남궁표
박상엽
神戸教会 장상재 전규장 한철이
원순정 정순희 강숙자
三宮伝道所 강필래
大阪教会 김경추 권의순 권국광
정차선 김종길 이옥규
고두진 오재현 김경석
윤용도 김군화 김관옥
강무생 강남중
京都教会 조임순 한대용 서명인
조필률
滋賀 전태순
堺 教会 이성기 윤월순 김수태
전귀숙
川西教会 허천엽 조정식 공옥선
방낙실 外3名
布施教会 노재규 우영수 김방열
김갑성
築港教会 김중태

宣教基本方策を検討する (3)

——今日の伝道を担うために——

朴 米 雄

②、①との関連で《家の教会》の形成を最重要視している。

これが二番目の特色である。

ここでは《家の教会》が中心的課題である。

この《家の教会》という場合《家の教会》という表現によって、何が意味され更にそこから何が意図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事が重要である。

先ず、『宣教基本政策』の〈伝道〉の(3)によれば、同胞人口の比較的集中地域に教会堂を建て、その周辺地域に《家の教会》を形成する、ということからすると、この《家の教会》は家庭集会(注Ⓐ)とも受け取れるのであるが、項目(5)によれば《家の教会》(伝道所)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伝道所とも受け取れる。又、項目(5)にそれは故各個教会は支部教会あるいは家の教会、(伝道所)を設置することに全力をあげること、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支部教会とも受け取ることが可能である。

然し、この点は『宣教基本政策』から読み取る限りでは曖昧であり、明確には判断しにくいが《家の教会》として使われる一般的な神学概念や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の現状から判断すればおそらく、この《家の教会》とは、小は家庭集会から大は支部教会までを含むものであろう。

例えば、一つの例を上げるならば、周辺地域にある一つの家庭集会が一定数に達したり、主日学校の分校ができたり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家庭集会が同胞人口集中地域にある教会から除々に独立することによって、やがて色々な過程を経て伝道所や支部教会へと発展する。

以上の例からも理解できると思うが、ここで(『宣教基本政策』)にいわれている《家の教会》とは、家庭集会から支部教会に到るまでの各段階における「教会」ということであろう。そして、各段階における「教会」は伝道所、支部教会を志向する。

もし、以上の記述が大略において正しいとすれば、ここから《家の教会》の意味と意図が出てくる。

即ち、今日の社会生活における、都市化に伴う人口の流動化や匿名化、そしてそこから来る人間の孤立化閉塞化等、特に同胞のあらゆる面における多様化、民族性喪失化や韓国人としての(つまり現実生活の)様々な苦悩や生きざまを直接受けとり分ち合う場として《家の教会》を位置ずける(意味づけ)だけではなくそうゆう現実を貫いて働き給う主を証しする場として位置ずけ、かつ現在の教会活動を補ぎない、伝道の日常活動の場として《家の教会》を位置づける。

この事は、ともすれば生身の自己自身を神の前に差し出すことを避けがちな人間を礼拝とは違った形において主の御前にそれ自体を差し出すだろうし、伝道というものが一方的な押しつけではなく、深い人間自身の自己理解に基いていることを示す良い機会となる。

又、《家の教会》は、〈伝道する家庭集会〉である故私共、伝道したいと願う者をも悔改めと自己の再教育の必要性を痛感させるに到るであろう。

以上、私は、《家の教会》の概念や意味、又それらが今日の時代にふさわしい伝道形態であると共に、積極的意味を持つ事を述べてきたつもりであるが、『宣教基本政策』では明確に述べられていない為、私流の解釈に落ち入ることを恐れるが今後《家の教会》は、その意味づけだけではなく、実際的な家の教会形成に於ても、私共の課題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又、《家の教会》は、私共の現状から判断する限り、牧会という観点からも、積極的な意図を評価できるということも併せて記しておく。

（つづく）

（横須賀伝道所教師）

注Ⓐ家庭集会とは、内容的にいえば、祈禱会、聖書研究会、礼拝、伝道集会等様々であり、その会が最も必要としているものから出発すればよい。

이달에연이어開催

4개地方会

9월에들어 各地方에서는 地方会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것같다。

금년은 任員선거가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놓여진 실정이 도전받는 시대인만큼 총대원은 물론 온교우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금번총회에 임하여 주기를 바란다。

地方会 開催日과 場所는 다음과 같다。

西南地方会＝9월10일(火) 於小倉教会
中部地方会＝9월23일(月) 於岡崎教会
関東地方会＝9월23일(月) 於船橋教会
関西地方会＝9월24일(火) 於北部教会

在日大韓基督教会
第三〇回定期総会

召集公告

主안에서 本総会傘下에 있는 모든 教会와 信徒들의 平安과 発展을 기도드립니다。

一九七四年度 本総会第三〇回定期総会를 다음과같이 開催함을 公告하는同時에 本総会発展을위하여 下記事項에대하여 貴教会와 総代들의 기도와 協力을 부탁드립니다。

記

(1)第三〇回定期総会

時日 一九七四年十月九日(水)午前十一時〜十日(木)午後五時
場所 京都教会
京都市右京区西院矢掛町二〇
電話〇七五(三一一)五〇五一

(2)協力 부탁 事項

①一九七四年度 各教会 宣教負担金을 納入하여 주실것。
②特別指定献金 未納分을 보내주실것。
③各教会 地方会 献議案을 九月二五日까지 보내주실것。
④各機関 一年活動報告를 提出하여 주실것(마감九月二〇日)。

一九七四年九月三日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
総会長 李 仁 夏

우리 총회에 要望한다

左로부터 金哲淳 宋富子 金君植 慶恵重 金桂昊 崔京植 제씨

第30回定期総会와 地方会를 앞두고, 우리 교회내 各界의 意見을 들어보고자 지난 8월30일 총회사무실에서 5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座談会를 가졌다.

목사 중에서 金桂昊氏 장로 중에서 金漢필氏 집사중에서 金哲淳氏 宋富子氏 女伝道会에서 慶恵重会長 青年会에서 金広照会長 총회대표 최경식총무등이 出席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金漢필氏와 金広照氏가 参席치못하여 時間上 代理를 보충치못한채 실시하였음을사과드리는 바이다. ——편집부

出席者

金桂昊氏（品川教会牧師）
金哲淳氏（横浜教会執事）
慶恵重氏（東京教会、女伝道会会長）
宋富子氏（川崎教会執事）
崔京植氏（総会総務）
司会 金君植氏（本紙編集人、横浜教会牧師）

司会 오늘은 여러분의 총회에대한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金(哲) 솔직히 말하면 총회에대해선 거의 단념하고있다。총회와 우리信者와는 아무런 관계도없는 감을 가지고있다。

司会 총회가 하는 일에 失望하였다는 뜻입니까?

慶 그런 發言은 큰일입니다。나는 가슴이 앓는 기분이다。총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無責任한것 같다。

金(哲) 잘알겠읍니다。

내가 왜이와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이해가 잘안되는것 같습니다만 저와같이 총회에대해서 의견을 말할수있는자가 조금이라도 있는限 총회로선 희미하나마 希望이 있다고 말할수 있지아니할까。총회에대해서 全혀 침묵하거나 그렇지아니하면 無関心者가 너무나 많다。

그원인은 어디 있느냐。목사·장로가 모인 총회에 一般信徒의 의견이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어떤때는 의견도 냈지만 그때마다 黙殺당하고 말았다。

총회는 어디로 向하는가
전도자養成은 어떻게?

司会 金桂昊목사님 한마디……。

金(桂) 지금까지의 총회를 보면 個教会에는아무런 영향이 없는것은사실이다。

一部의 지도자들의 마음대로 하고있다는 인상이 깊다。

총회에 출석하는 목사·장로가 총대원으로서얼마만큼 그책임을 감당하고있는지가 의문이다。총회는 個教会나 地方会에서 당면하고있는 諸問題를 論하는것보다 총회에서 一方的으로 定하고、信徒들이 論하고 理解하기도전에 対外에 널리 宣伝하고있다。우리들은 이러한일에 一種의 疎外感을 느낀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총회는 어디로 向하고있는지? 個教会가 참으로発展하고 成長할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지아니할까? 지금까지는 안에 眼目을 두는것보다도 海外教会와의 관계에 그정력을 집중시키지 아니하였는가? 총회는 우리 교회가日本에있어서 어떻게 교회形成을 해나아가야하는가를 생각하지않고 또는우리측의 主体 역시 무시당하여왔다。앞으로는 우리 교회의 内部問題를다룰 필요가 있는줄 안다。

宋 총회는 밖으로만向하고있다는 의견같은데、나는 교회생활 한지도 얼마 되지않고 총회란 実態도 잘몰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총회가 참으로自己의 成長을 誠実히 해나아가지 아니하고 밖을 向하고있다는 인상은 절실히 느끼고있다。

金(桂)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총회에 교역자가 不足하다하여 곧本国에서 宣教師를 부르려는 安易한 생각에 찬성치못한다。

在日60만 동포에대해、어떻게 전도할것인가。伝道者를 어떻게 養成할것인가를 더욱 심중히 생각하지아니하고 곧本国에 依存하려고하는데 問題가 있다。

本国에서 오는 宣教師는 二·三世의 생각을理解하기는 매우 어려울것이다。思考方式이 전연 다르다。총회는 二·三世의 伝道者養成을 포기하고있지 아니한가?

崔 김목사의 이야기는 잘알수있다。

그러나 총회는 결코 個教会를 무시하고 있지는 아니한다。個教会가 참으로 発展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海外와 連帯하고있다。海外와의 교제가없으면 고립하기마련이다。앞으로의 宣教는 他教団과의 진정한 교제안에서 行해져야 될줄 안다。

金(桂) 崔목사의 이야기는 海外教会와의 連帯를 強調하고있지만 그런경우、먼저 우리 총회는 基本的으로主体性이 確立되고 총회가 지향하는方向性을 明白히 한후에야 비로소 海外와의 連帯云云도 의미가 있다。우리교회의 指導者의 独走가 곧 이런경우에 문제가 된다。

海外에 공부하러 갈때도 먼저 우리의 問題意識의 明確化 또는 主体性이 確立되어있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金(哲) 내가 青年会의 中央委員을 한적이 있지만 그때 생각한것은 몇몇사람이 自己들 中心으로会를 이끄는 경향이 있었는데、지금 金桂昊목사가 이야기한것도 같은 뜻인줄 안다。나는 총회에대해서 생각하는것은 20년전의 총대들이 지금도변함없이 그자리를 지키고 있다는것이다。

小杉강도사가 福音新聞에서 지적하고 있지만、총회는 좀더 機能的이어야 하겠다。지금까지의총회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식이다。좀더위로부터 아래로、아래서는 위로 個教会와 총회와의 循環을 순조롭게 하지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므로 極端的으로말하면 총회를 보면 失望뿐이다。총회의 問題가적어도 個教会의 諸職会만큼은 論議할수있도록 되어져야 하겠다。

司会 총회의 任職員会의 決議事項은 福音新聞에 記載되고 있으므로、모두가 주의하여 보고問題를 삼으면 될줄 안다。

총대의 役割이 긴요
女牧師없는 책임어디에

慶 목사나 장로가 총회에 出席할때에 教会를 代表하고있다는 自覚을가져야 하겠다。

自己개인의 주장·의견도 좋지만 좀더 個教会의 代表로서 총회에대해 건설적인 주장과 의견이 있어야 하겠다。그리고총회에서 돌아와 총회에서 되어진 일을 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집사들도 총회에 대해서 깊은 関心을 가지고 기도하는중에 모든것을 우리의 문제로서 参与해야 하겠다。

崔 동감입니다。

金(桂) 총회와 교회는 유리되고있다。

崔 제가 총무에 취임하여 말한것은 밑바닥에 있는 소리를 듣겠다、그래서 총회 운영에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現実로는 牧会보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다。그소리를 듣지 못하고있는것이 現実이다。총무와 신도와의 관계도 마음의 접촉이 없다。

金(桂) 총무는 全国教会를 방문하면서 그소리를 들어야 할줄 안다。사무실에서 사무만 보는것이 총무의 일만은 아니다。

崔 금후부터는 좀더地方교회와의 접촉을 가지겠다。총회는 돈만 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아니듣도록 힘쓰겠다。

宋 교회에 들어와서보니 교회란 곳은 확실히 돈이 드는곳이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된 動機는 교회가 우리의問題를 具体的으로 감당하고 있기때문이었다。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가끔가다 日曜日에 모였을 때 좀더 신도간의 교제를가져야 하겠다。그래야 우리의 問題도 충분히 논의될수 있으며 총회에도 그의견을 반영해 나아갈수있지않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姿勢를 論議만하니 매우 어렵다。그러므로 총회의 路線이 좀더 信徒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하지아니할까?

[illegible]

宋 총회란 곳은 保守的인 곳같구면요。

金(哲) 이문제는 進歩的이라든지 保守的이라따위의 문제가 아니다。女長老가 못나오는 책임은 実은 牧師에게 있다。

宋 男牧師는 있는데、어째서 女牧師는 없는지。李仁夏牧師에게 물어보았으나 満足할만한 대답은 없었다。女子가 아니면 지못할 分野가 있지아니한지?

金(哲) 단순히 총회나 男牧師에게만 責任이 있다고는 말못하는 면도있다。다시말하면 女伝道師나 婦人信徒側에도 問題[illegible]

金(桂) 지금까지 우리 총회안에 神学校에 가서 伝道師가 된이들이 있다。그러나 問題는 그들이結婚하기까지의 임시직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다。↖

製鉄原料・鋼材
建築資材・台貫
株式会社 田中商店
社長 李万重
本社 千葉県市原市岩崎650
電話0436(22)1037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話 052(682)1177㈹
自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
電話 052(771)5952

食品・薬品包装業
有限会社 加富利産業
代表者 金漢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03(890)0951番㈹

座談会

社会참여는 信仰가지고

二・三世와의断層메워야

↙그리고 총회 역시 女伝道者 양성에 根本的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女전도사도 좀더 자신을 가져야 하겠다。

金(哲) 총회의 대표로 長老 전부가 갈必要는없다고 생각한다。長老数가 많은 교회가 총회에서 徒党을 짤 위험도 있다。총회에 가서 問題의 本質을 갈라낼줄도 모르는 잠자는 長老가 많은것도 問題다。집사도 총회의대표가 될수있도록 그門戸를 열어야 한다。

慶 총회나 교회는 社会運動이나 政治問題에熱中하기전에 信徒의 信仰訓練을 철저하게 하여 그信仰을 強하게 하는것이 急務가 아니겠는가? 信徒의 信仰이 確立된후 政治・社会문제를 다루어야 한다。信仰이 무엇인지모르는데 世俗문제에 뛰어들어가 교회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金(桂) 信仰과 이세상問題를 二元的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지아니할지?

金(哲) 本国의 신자는 모두다 그렇게 생각한다。우리들이 살고있는 社会문제에 대해서 교회나총회가 얼마만큼 온정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実은 信仰的인 삶이지 이세상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連帯하는것이 곧 기독자이다。그리함으로 인해서 信仰的인 면에서도 個個의 人間이 強해지는 것이다。信仰이 確立될때까지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다。一平生 하더라도 信仰의 확립이란 어렵지 아니한가? 그런 경우 어떠한 신앙인지도 문제는 되지만……。

金(桂) 信仰이란 우리 生活의 一部分이 아니라 全部다。人間의 모든 問題에대해서 勇気를 다하는 人間의 삶이 곧信仰的인 삶이 아닐까?

宋 나라는 人間과 나의 現実을、그리스도가 말한 의미에있어서 変化시키는 힘을 주는것이 곧信仰이라고 생각한다。

慶 그러나 現実로는教会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政治問題만 다루는데 즉 信仰이 中心이 아니다。

金(哲) 本国에서 오시는분은 거의다 이와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二・三世와 다른점도 곧 이문제다。앞으로 教会의 分裂이 생길 우려가 있다。따라라서 총회는 좀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宣教師를 초청하는 경우 本国과 日本과의 状況의 相違를 인식하여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않도록 조심해야하겠다。

한가지 案으로선 목사를 本国에서 데려오는것보다 本国에서 神学校졸업하여 얼마되지 아니한 젊은사람을 불러 얼마동안 이곳에서 二・三世의 諸問題에 익숙한후 伝道할수있도록 하면 어떨까。

慶 日本에 와서 제일 큰 고민은 在日韓国教会의 信徒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는것이다。당신은 언젠가는 本国에 갈사람이다、하고 상대를 해주지 아니한다。이곳에 있을 동안은 교포를위해서 있으니 마음을 열어서로 통할수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宋 나의 入信의 動機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絶望밖에 없는 在日韓国人의 現実속에서 단념하지말고 투쟁하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때、큰위로가 되었다。이런것은 他宗教에선 찾아볼수 없는것이었다。抑圧의 状況속에서 失望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이라 생각하였다。

이제 우리는 좀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위하여 일할수있는 총회나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勇気를 주고 움직일수있는 총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金(桂) 오늘의 목사의 설교는 추상적이다。状況을 無視하는 복음을 전하고있다。우리들의 日常生活에서 우리를 変革시키는 解放의 힘이 없다。政治・経済등 社会의 여러分野에 침투하는 福音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아니될줄 안다。

金(哲) 金목사와 같은 분이 총회안에 계신다고 하는것은 우리 中年信徒에게는 큰힘이 된다。

教会는 삶의힘주어야

오늘의 牧師像은?

이와같은 発言이 총회 석상에서 정정당당하게할수있게 되어야겠다。총회의 과제는 교회와 現実과의 断絶을 어떻게 좁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이것은 個教会에도해당된다。魅力있는 총회가 되지아니하면 中年집사信者들은 교회에서 脱落할 우려가 있다。10年후의총회가설 姿勢・비전이 필요하다。이와같은 좌담회가 他地方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金(桂) 二・三世에게희망과 비젼을 줄수있는교회와 총회가 되어야한다。

큰교회는 지금도 一世가 지배적이어서 本国에서 목사를 부르려는 자세는 우리들의 問題를理解하지못하고있는 증거가 아닐까?

宋 교회에 外部에서손님이 오면 그분은 훌륭한분이다、地位가 높은분이다 소개하는데、참으로 신앙을 가진자들 사이에는 있어서는 아니될 말이다。나자신 그런 점에 감명을 받아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다。누구나하나님 앞에서는 平等하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社会的評価를 교회에서도한다는것은 비기독교적인것이 아닐까? 나와같은사람은 너무나 劣等感을가져서 안되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하고 싶은것은 목사님은 털어놓고 信徒와 이야기할수있는 분위기를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언제나 새삼스럽고 딱딱한 목사님은 좀경원해집니다。

모두 이러한 교회와목사의 분위기를 고쳐가야 하겠읍니다。

慶 목사의 위치는 불상하다。일반의 평은 목사같지 않다。권위가 없다고 비난당한다。이렇게하면 이렇다、저렇게하면 저렇다、하니、불상한건목사다。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는게 목사가아닐까?

宋 그점은 잘알겠읍니다。그러므로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司会 이와같은 생각은 새로운 신도들의 목사에 대한 牧師像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되어 이정도로 끝마칠까합니다。감사합니다。

교회를 찾아

自立단계에 들어서

明石伝道所

関西地方의 明石伝道所는 神戸教会에서 세운지 이제 6년이 되었다。그동안 온교우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福音선교및教育과 봉사에 全力을 다한 결과 이제는 自立단계에 들어섰다。

神戸教会가 設立하고후원하여 성공한 전도소로서 좋은본이 된다 하겠다。이제 앞으로 남은 큰과제는 教会堂 建築이된다。

본전도소는 関西地方会에서도 定評이있는 대로 ①사랑이 넘치는 전도소 ②伝道熱이 뜨거운전도소 ③協助봉사에 모범적인전도소 ④성경 공부에 모범적인 전도소 ⑤열심히 기도하는 전도소 ⑥지도자를 中心하여 일치단결된 전도소라는점이 현저한 特徴이라 할수있다。

또매주일 예배중 ①引家帰道를위하여 教会堂建築을위하여 ③우리나라統一을위하여 全教友가 합심기도하는것은 좋은본이 될것이다。(사진은 明石伝道所視務辛鍾国목사와교우一同)

延百60名이 참가

札幌伝道所 特別집회에

札幌伝道所(李聖柱목사視務)에서는 개척전도4년만에 처음으로 특별전도집회를 가졌는데 큰成果를 거두었다한다。

금번집회는 총회 전도국의 적극적인 후원과전도국幹事 田永福목사의수고로 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집회를 6回、축호전도、病院방문、職場방문을 3회나 하는등 정력적으로 전도를 전개한 결과 延参加者百60名、札幌伝道所의 主日예배時에 32名이 참석하는 큰성과를 거두었다한다。

이특별집회를 끝마치고 李聖柱목사는 다음과같은 評価와 建議를 하였다。

금번집회는 求道者와決信者의 再献身을 촉구하며 札幌伝道所 10家庭入信者確保를위한 伝道계획에 크게 有効하였으며、担任목사와 伝道局幹事와의 가정방문전도의 共同牧会는 계속할 필요가있다。

札幌伝道所를 中心하여 東北地域의 개척전도를위해 七五년 5월과 9월 年2回의 집중 전도집회(旭川・釧路・苫小牧・帯広・青森・仙台등)를 建議한다。

성아合唱団、성과거두고 帰国

고운 목소리로 한국을 소개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며 주님의 뜻을 노래로 나타낼것을 목적으로한 성아합창단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大盛況을 이루고 8월17일 帰国하였다。

台湾을 公式訪問하고日本에온 성아합창단(金仁淑団長)은 小学校5学年生부터 高等学校1学年生까지의 17名이다。

우리 교회 관계는 8월10일 京都教会、11일大阪教会、12・13일 名古屋教会、14일 関東地方会連合으로 東京教会에서、15일은 光復節기념식전에特別出演으로 民団東京本部가 主催한 浅草国際劇場에서 그고운 노래소리를 피로함으로 日本에서의公演을 끝마치고 17일 귀국하였다

佐世保伝道所金承俊목사委任式

佐世保伝道所에서 視務중인 金承俊목사의 委任式이 西南地方会(会長崔昌華목사)의 주최로 지난9월1일 주일에 거행되었다。

佐世保伝道所는 開拓地로서 애로가 많은곳이지만 금번 위임을 받은 金承俊목사는 이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4百名동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수있을것을 믿고 기도와 성원을 보낸다。

高級婦人服製造卸
OK商会
金京秋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281号
電話 大阪(06) 251－5444番
自 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 話 大阪(06) 981－2980番
974－7715番

トピー実業株式会社大阪支店 代行店
公認計量所
製鋼原料・製紙原料・非鉄金属・諸機械其の他
本山商店
李成基
堺 店 堺市西湊町2－115
電話 0722(41) 2144番
美原店 南河内郡美原町大保 213－1
電話 0723(62) 3315番

ポリエチレン・スチロール・アクリライト・アセチロイド・ニョウソ成型加工
三洋プラスチック工業株式会社
取締役社長 李小龍
東大阪市足代北1－12(近鉄布施駅5分)
電話大阪(06) 783－0131番
社長室 電話大阪(06) 781－2286番

서울에만도 千余교회

献金額이 週1億원에

밝혀진한국교회의실정

本国教会의 実情의 一断片을 알려주는 報告가 「週刊宗教」에 의하여 밝혀졌다。

서울市内에는 약1千余의 교회가 있는데 한주일에 모이는 献金이 1億원에 달한다는것이다。한달에 4億원、1년에 50億원의 献金이 모이는교회들의 現況을 여기에 소개한다。

서울市内만하더라도 약1千余教会가 있으며 교회의 운영비는 물론 현금이 中心이다。

献金의 内容은 月定献金、主日献金、十一조献金 感謝献金등이며 1個教会의 毎週平均은 約10万원 全体로는 約1億원에 달하고있다。

그中、週百万원以上 献金이 모이는교회는 10개교회、週50万원以上의 교회는 60개 교회이며 全体献金의 40%가되는 4千万원이 이 70교회에 집중하고있다。

週最高의 献金은 2百万원、最低는 2万원으로 한국 교회의 貧富의 差는 実로 百倍나 된다。

서울市内의 어떤 큰교회의 教会学校의 幼稚部 初等部의 献金이 週5万원이되는 곳도있어 일부 작은교회의 献金額에 맞서고있다。

그러면、信者1人当의献金額을 保守적교회와 進歩적교회의 비교로써 보면、保守적교회의 경우 3百64원、進歩적교회는 2百96원으로 保守적인교회의 信者가 献金을 많이 하는셈이다。

그리고 부활주일등의 献金은 平常時보다 약50% 증가하고 있으나 奉仕주일、遺家族援助、拘束당한 教役者家族을위한 献金 또는 社会奉仕등을위한 献金은 매우 적다고 보고하고있다。

그리고 이献金은 어디에 쓰이고있느냐하면 財政의 95%는 그교회内에서 소모되고있으며、内容은 教会堂의 装飾등 소비성을 지니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農村教会등은 교역자의 生計조차 保障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都市교회는 個教会主義에 빠지고있어 한국 교회가 지닌 그体質의 전환을 촉구하는경종을 울리고있다。

傘下各기관夏季수양회報告

全国青年会

野尻湖で130名が

今年で第二十二回を迎えた全国青年修養会が信州・野尻湖レークハウスで八月13日から16日まで開催された。全国から教職者を含め約百三十名の青年が参加、三泊四日のプログラムを消化した。主牧には尹宗銀牧師、講師に李仁夏牧師、崔忠植牧師を迎え、和やかな雰囲気のうちにも有意義な講演、発題、討論が交された。

崔忠植牧師の講演は、「人権」の擁護という立場に立って語られ、本国の抑圧状況と我々の抑圧状況を示す具体的な例を上げながら対比させ、これらは決して切り離して考えることは出来ないのだという問題提起がなされた。又、李仁夏牧師の講演では「今日における救いとキリスト者の現存」というテーマの下に使徒行伝十章を示しながら、神の言葉をどういう歴史的な状況の中で受けとめてゆくのか、我々の教会が犯してきた誤ち、即ち民族の苦難を荷って来なかったという積任を指摘しつつ、こういう状況に現存する我々キリスト者はどう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正に生きていく上での闘いをすることこそが信仰的な生き方であり、それを我々のライフ・ワーク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青年に対する大きな期待と励ましが語られた。

青年側からはこの一年間主題、副題の下に全協が行なってきた一連の運動の報告とその意義、本国キリスト者の民主化運動の意義、日立糾弾闘争に対するアピール、主日学校問題、全協組織を拡充するための地方会からの要望等、様々な立場からの発題が行なわれ、それらの問題を各々が各分団で真剣に討論した。その他フリータイムに行なわれたボート競技では全員、年を忘れて奮闘し、又、湖上パーティーでは各分団が鋭い風刺を交えた寸劇や歌舞に妙技を競い、思いがけないヒーローも誕生したりで無事故のうちに楽しく三泊四日を過ごすことが出来た。

全国青年修養会㊤と関東地方女伝道会修養会㊦の参加者たち

高等部会も結成

関東中高生は御殿場で

中部中高生は名古屋で

関東地方中高校生夏季学校は、八月26日～28日まで約40名の参加のもとで、東山荘において開校された。

これに先だって、中高生教育をただ個教会、あるいは親たちの関心と責任においてのみなされるのではなく、次代を担う中高生の教育をわたしたちの責任と関心をよびおこすことに目標をおき、バザーと映画会を25日、東京教会にてもった。いろんな批判もあり、準備不足もあって、所期の目的を十二分に達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その成果は大きいといえよう。

テーマは「わたしたちの教会」――日本に住む韓国人の諸問題――という副題で崔京植牧師の主題講演は中高生に深い感銘を与えた。

27日の夜、キャンプ・ファイアーの場で、曺玉千君（中三、川崎教会）の証があった。

「小学校六年生の時、通名から本名にきりかえたが、はじめは、いやであったが今は本名を名のることによって、胸をはることが出来た」ことを証し、同年代の中高生に深い感銘を与えた。

李順恵さん（高二横浜教会）は曺君の証しを聞いて次のような感想文をよこした。

「今日までに何度、私は自分の名前の事で悩んだかわかりません。

私自身いつも家では、誇りをもって韓国人であることを通せると思っていたのに、いざ、その時になると知らず、知らず隠してしまうのです。

でも昨夜のキャンプ・ファイヤーで決心しました。〃今度こそは〃と……」

この夏季学校を通して、高等部会を組織できたことも、大きな成果であった。

高等部会
部長　金洪済（調布）
副長　呉承輝（東京）
書記　崔貴香（〃）
会計　金正美（川崎）
事務所・東京教会高等部室

◇　◇

中部地方中高生夏季学校は、八月1日～4日「明日をになう教会青年」のテーマで、約30名が参加した。

発題の中で名古屋教会の丁麻里さん（中二）は「韓国人と日本人……どこが違うのか、何故に差別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わたしたちがいったい何をしたというのだろう、幼いわたしたちに何が出来たのだろう」と、日本人の差別を告発しながら、「で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それはひとりひとりがまず、自分が韓国人という意識を持つことが大切である」と強調した。

この夏季学校の大きな成果は、中高校生として、明日をになおうとする生きる姿勢をはっきりさせたことは、中高校生会を結成したことで明らかである。

以下は中高生会役員である。

会長　黄源基（名古屋）
副会長　禹鍾浩（名古屋）
〃　金恩淑（豊橋）
書記　丁麻里（名古屋）
副書記　趙恵順（岐阜）
会計　徐順子（名古屋）
副会計　徐喜源（名古屋）

30名이三浦半島서

関東地方女伝道会

関東地方女伝道会（慶恵重会長）에서는 지난8월 20・21일 양일에 걸쳐三浦半島의 그린하우스에서 夏季수양회를 가졌다。

이수양회에는 関東地方의 각교회 女伝道会会員 약30명이 참석하였다。

「現代教会女性과 그展望」이란 主題로 崔京植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였으며 2回에 걸친 主題강연을 통하여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한다。

금번에는 연령적으로 젊은층이 적은편이었으나、젊은 회원들이 더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활발한의견의 교환이 있었으면하는 감을 가졌다한다。

関東中高生㊤と中部中高生㊦夏季学校の参加者たち

埋立工事ブルドーザー工事
レッカー作業
金坂建設株式会社
金再龍
岐阜市長良真福寺3332－2
電話32－4462(代)
大阪出張所(06) 932—6312

東和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李東和
東京都江東区永代2—11—3

宅建千葉県知事登録(1)第3841号
三信商事株式会社
代表取締役権富仁
本社 千葉県八千代市米本1448—1
電話 0474(88)5579・1613番
営業所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 0474(76)6181～2番